

소비자와 약사들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인식 및 행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¹, 연세대학교 간호대학²민영미¹ · 설재웅¹ · 오희철¹ · 이은숙²**A Study on the Awareness and Behavior of Consumers and Pharmacists toward Non Prescription Drugs****Young Mi Min, MSc¹, Jae Woong Sull, PhD¹,
Heechoul Ohrr, MD, PhD¹ and Eun Suk Lee, PhD²**¹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²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compare consumers and pharmacists in their awareness knowledge and the use of non prescription drugs and experience of their side effects. **Methods:**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by visiting consumers in pharmacies and pharmacists for the period of one month. 216 pharmacists and 238 consumers filled out the prepared survey form on non prescription drug use. The result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using the SAS Program. T-test, ANOVA and chi-square test were conducted. **Results:** The usage status of non prescription for consumers showed the significant results by knowledge, abuse and side effects. In the survey to measure the knowledge of medication guide on non prescription drugs for anti-pyretic, anti-inflammatory drugs and combinational cold medicine, 49.8% were unaware of their warning and precautions. And 50.9 % were unaware of drug interactions. 48.0% were unaware of side effects due to a long term use of digestive drugs. 24.8% of consumers had a long term use of non prescription drugs. The most used drugs were anti pyretic and anti inflammatory drugs (31.0%). The duration was 7 years and 9 months on average. Among them, 52.8% have experienced the withdrawal symptoms. Highest risk groups were the 70 years old people (64.7%), the people with only elementary school education (50.0%) and the low-income people (32.8%). 36.5% consumers have experienced side effects and 61.1% currently had disease among them with a history of side effects of non prescription drugs. **Conclusion:** It is very important for consumers to have a sufficient medical knowledge to improve health. To prevent the misuse/abuse of non prescription drugs, pharmacists' advice on their application should be strongly enforced. And it is urgent for the public health community to inform and educate the general public on this matter. (JPERM 2009;2:114-121)

Key Words: Non prescription; Knowledge; Awareness

접수: 2009년 8월 20일, 승인: 2009년 9월 17일
연락처: 이은숙, 120-752,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250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Tel: (02) 2228-3230, Fax: (02) 362-1982
E-mail: les56@yuhs.ac

Correspondence to: Eun Suk Lee, PhD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250, Seongsan-ro,
Seodaemun-gu, Seoul 120-752, Korea
Tel: +82-2-2228-3230, Fax: +82-2-362-1982
E-mail: les56@yuhs.ac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을 두 가지 종류 즉,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누는데, 전문의약품은 처방의약품(Prescription Drugs)으로 보다 위험한 약물로 구분되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고, 일반의약품은 비처방의약품으로(Non-Prescription 또는 O.T.C. drugs) 환자의 자가 진단에 따라 판단하여 사용하며 비교적 안전하지만, 의약지식이 필요하며 의사의 처방이 없이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어서 비용 경제적으로 분류된다.¹⁾ 비록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에 비하여 약물의 민감도나 위험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일반의약품 또한 생물학적, 화학적 효과를 가진 이상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²⁾

일반의약품은 품목별로 해열, 진통, 소염제가 가장 많으며, 비타민제, 소화기관용 약, 자양강장드링크제, 종합감기약 등의 순으로 소비자의 자가 요법(self medication)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³⁾ 그러나 의약품의 성분, 용법, 용량 및 주의사항과 연령 제한 등 사용설명서를 확인하고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2000년에 감기약의 성분인 페닐 프로판올아민(PPA) 함유 일반 의약품이 뇌졸중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미국의 FDA는 시장 퇴출조치를 하였다. 또한 미국의 2개의 주에서 2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비처방(O.T.C.) 기침약과 콧물 약 및 종합감기약으로 사망을 초래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FDA에서는 비처방(O.T.C.) 감기약을 2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하였다.⁴⁾

이것은 자발적 부작용 신고 제도를 통해 관련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여 의약품과 부작용에 대한 실마리 정보를 감지하고(signal detection),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과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약물역학연구를 수행한 결과와 전문가들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안전성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다.⁵⁾

소화 기관용약 중 소화효소제는 생약, 물약과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남용하고 있는 품목들이다. 장기 사용할 경우에는 위압 등의 조기진단과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으며 소화에 관여하는 장기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소화제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진통소염제는 위장장애와 부종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어 있다.⁶⁾ 주위에는 진통소염제, 종합감기약과 자양강장드링크제 등을 습관적으로 매일 복용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자양강장드링크제는 광고 등의 영향으로 약이란 개념보다 음료라고 생각하고 용법, 용량과 연령제한을 무시하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있다. 이와 같이 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용법, 용량을 잘못 사용하는 실태에 대한 전문가의 정

보 제공과 보건당국의 감독이 없는 한 오남용과 부작용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은 오남용문제가 많이 연구된 반면, 일반의약품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드물어서 그 조사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⁷⁾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일반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인식과 행태, 오남용과 부작용 실태를 파악하여 일반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와 개국약사의 인식과 행태를 비교 연구하는 단면 연구로 설계하였다.

연구대상은 일 광역시에 소재하는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 약사 1,094명 중 219명이었다. 해당 광역시 약사회 8개 분회에 소속된 회원 중에서 분회별 회원수에 비례하여 대상자수를 할당한 후,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하여 설문응답한 약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9년 신상신고 된 약사 1,094명 중에서 20%인 219명이었다. 또한 약국을 방문하여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중에서 이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허락하는 대상자 244명을 임의 추출하여 자기 기입식 혹은 대상자에 따라서 인터뷰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는 해당 약국의 약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2. 조사방법

연구도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청⁸⁾에서 개발한 소비자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례 분석 및 신고활성화 방안연구에 수록된 도구를 선별하고, 2007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소비자 단체 간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교류 강화방안연구⁹⁾에 수록된 설문도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1차로 소비자와 약사 각각 10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를 거쳐 설문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후, 예방의학 교수 1인, 보건학 전공 교수 1인의 감수를 받아 용어, 문항 및 구성의 타당성을 수정한 후, 2차로 3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한 후,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1월 10일부터 2월 26일까지였으며, 약국을 방문하여 일반 의약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들이 본 연구 취지와 기재방법을 설명해주고 허락하는 대상자에게 자기기입으로 작성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소비자와 약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하여 기술통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비자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하여 일반적 특성별로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고, 장기사용경험과 부작용경험에 대하여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약사의 관점에서 소비자들의 일반의약품 사용행태와 부작용 발생에 대하여 기술통계를 구하였고, 약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식 및 태도에 대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소비자와 약사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t-test와 빈도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결 과

1. 소비자들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인식

표 1과 같이 소비자들은 일반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17.7%는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자가처방에 필요한 의약지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46.8%가 그렇

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한 문항에서는 68.6%가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과잉기대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26.8%였다.

2. 지식수준

소비자들의 일반의약품 관련 지식수준에 대한 문항에서 해열진통 소염제 및 종합 감기약의 약물상호작용에 대해 50.9%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자양강장드링크제의 복용법을 모른다는 대상자는 58.9%, 복용가능연령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대상자가 61.4%였다(표 2).

3. 소비자들의 일반의약품 장기적 사용 경험여부와 종류

일반의약품을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3과 같이 장기적으로 매일 일반의약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4.8%였다. 해열진통소염제가 3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양강장드링크가 28.6%였다. 사용한 기간은 평균 94.84개월이었으며, 년으로 계산하면 평균 7년 9개월이었다.

일반적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

Table 1. Aware of non prescription for consumer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Yes number (%)	Common number (%)	No number (%)
Non prescription is safe	91 (38.4)	104 (43.9)	42 (17.7)
Medical knowledge is enough	52 (22.0)	74 (31.2)	111 (46.8)
Adverse drug reaction	162 (68.6)	42 (17.8)	32 (13.6)
Excess dependence for efficacy	63 (26.8)	85 (36.2)	87 (37.2)

Table 2. Knowledge level of non prescription for consumer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Respondent (number) Percentage (%)		
		Respondent (number)	Percentage (%)	
Antipyretic, anti inflammatory and combinational cold remedy	Method to use	Awareness	178	78.1
		Unawareness	50	21.9
	Warning	Awareness	113	50.2
		Unawareness	112	49.8
	Drug interaction	Awareness	112	49.1
		Unawareness	116	50.9
Caution of long term use	Awareness	160	73.4	
	Unawareness	58	26.6	
Digestive drug	Method of use	Awareness	145	73.6
		Unawareness	52	26.4
	Caution of long term use	Awareness	106	52.0
Unawareness		98	48.0	
Nutritional supplement drug	Method of use	Awareness	72	41.1
		Unawareness	103	58.9
	Restriction of age	Awareness	68	38.6
		Unawareness	108	61.4

Table 3. Experience of non prescription drug in long term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Respondent (number)	Percentage (%)
Experience of long term drug continuously	Yes	53	24.8
	No	161	75.2
Total		214	100
Kinds of long term drugs	Anti-pyretic, anti-inflammatory	13	30.9
	Combinational cold remedy	6	14.3
	Digestive drug	2	4.8
	Nutritional supplement drug	12	28.6
	Skin ointment, plaster	9	21.4
Total		42	100.0

Table 4. Experience of long term use of non prescription drug through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Experience of long-term drug				p-value	
	Yes		No			
	Number	%	Number	%		
Total	53	24.8	161	75.2		
Sex	Male	17	21.5	62	78.5	0.4494
	Female	34	26.2	96	73.9	
Age	≤ 19	1	12.5	7	87.5	<.0001*
	20-29	5	21.7	18	78.3	
	30-39	6	14.0	37	86.1	
	40-49	7	11.9	52	88.1	
	50-59	5	19.2	21	80.8	
	60-69	14	45.2	17	54.8	
	70-79	11	64.7	6	35.3	
Current disease	Yes	29	34.1	56	65.9	0.0005*
	No	14	13.1	93	86.9	
Education	<Elementary school	2	50.0	2	50.0	0.0274
	Graduated from elementary school	7	43.8	9	56.3	
	Graduated from middle school	7	33.3	14	66.7	
	Graduated from high school	19	27.1	51	72.9	
Monthly income	≥Graduated from university	14	15.4	77	84.6	0.1788
	<\$2000 [†]	20	32.8	41	67.2	
	\$2000~\$4000	18	21.4	66	78.6	
Occupation	≥\$4000	7	18.4	31	81.6	0.0057*
	Housewife	21	44.7	26	55.3	
	Company employee	6	14.6	35	85.4	
	Professional job	3	13.6	19	86.4	
	Government employee	0	0.00	7	100.0	
	Student	1	9.1	10	90.9	
	Service employee	2	12.5	14	87.5	
	No restricted trade	3	17.7	14	82.4	
The others	9	25.7	26	74.3		

* p<0.01.

[†] 1\$=1000 won.

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 현재 질병여부, 교육수준과 직업과 관련성이 있었다. 60, 70대의 연령층에서는 30, 40대보다

장기 사용 경험이 높았다. 가구당 월소득이 낮을수록 장기 사용 경험이 높았으며, 전업주부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

들보다 높았다(표 4). 또한 장기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에서 현재 질병 유무에 따른 분포를 보면, 질병이 있는 대상자들이 67.4%, 질병이 없는 경우가 32.6%로 장기사용자 중에는 질병이 있으면서 일반의약품을 자가처방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의 분포가 훨씬 높았다. 이는 질병이 있는 소비자들이 건강상 문제 발생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약물 남용의 우려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4. 소비자들의 일반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 경험

일반의약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의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36.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비자의 일반적 특성과 현재 질병유무에 따른 부작용 발생은(p=0.0007)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5).

5. 약사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약사들 중에서 일반의약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35.2%였으며, 일반의약품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4.8%였다. 소비자들의 의약지식수준에 대하여 일반의약품을 자가처방할 정도의 의약지식이 있다고 응답한 약사들이 3.3%, 그렇지 않다가 84.8%였다. 소비자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과잉의존에 대한 문항에서는

34.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6. 일반의약품 사용시 부작용 발생실태

약사들은 평균 한 달 동안 소비자로부터 일반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65.4%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호소하는 부작용증상은 속쓰림이 2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두드러기가 15.0%, 메스꺼움이 13.9%, 발진이 11.5%로 응답하였다. 소비자가 부작용을 호소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질문에 병의원에 보내는 경우가 47.0%로 가장 많았으며, 증상을 호전시키는 약을 주는 경우가 23.5%였다. 또한 무료로 약을 주는 경우가 13.6%였다(표 6).

7. 약사와 소비자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비교

일반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에서 소비자보다 약사가 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일반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발생에 대하여서는 약사들이 소비자보다 훨씬 더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의 필요성에 대한 문항에서 약사들이 소비자보다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와 약사들의 일반의약

Table 5. Experience of adverse drug reaction through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Experience of ADR*				p-value	
	Yes		No			
	Number	%	Number	%		
Total	85	36.5	148	63.5		
Sex	Male	28	33.7	55	66.3	0.5955
	Female	54	37.2	91	62.8	
Age	≤ 19	0	0.0	9	100.0	0.1500
	20-29	9	32.1	19	67.9	
	30-39	16	35.6	29	64.4	
	40-49	21	31.3	46	68.7	
	50-59	13	54.2	11	45.8	
	60-69	14	41.2	20	58.8	
	70-79	9	47.4	10	52.6	
Current disease	≥ 80	1	33.3	2	66.7	0.0007 [†]
	Yes	44	46.3	51	53.7	
Education	No	28	24.1	88	75.9	0.3382
	<Elementary school	2	28.6	5	71.4	
	Graduated from elementary school	7	38.9	11	61.1	
	Graduated from middle school	8	38.1	13	61.9	
	Graduated from high school	35	45.5	42	54.6	
≥Graduated from university	29	30.2	67	69.8		

* ADR: adverse drug reaction.

[†] N: number.

[‡] p<0.01.

Table 6. Adverse drug reaction manifestation, pharmacists' guide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Respondent (number)	Percentage (%)	
ADR* complaint from consumers	Yes	140	65.4	
	No	74	34.6	
ADR symptoms [†]	Epigastric pain	97	26.0	
	Urticaria	56	15.0	
	Nausea	52	13.9	
	Skin rash	43	11.5	
	Dizziness	40	10.7	
	Insomnia	25	6.7	
	Vomiting	20	5.4	
	Headache	16	4.3	
	Dysurea	12	3.2	
	Anorexia	10	2.7	
	The others	3	0.8	
	Pharmacists' guide	Hospital	100	47.0
		Medication after counseling	50	23.5
Free medication		29	13.6	
The others		18	8.5	
Pharmaceutical company		9	4.2	
Neglect		7	3.3	

* ADR: adverse drug reaction.

[†] ADR symptoms: double answering.

Table 7. Comparison on awareness and behavior of consumers and pharmacists

Variable	Classification	Respondent (%)		p-value
		Consumer	Pharmacist	
Safety	Yes	91 (38.4)	82 (38.9)	<0.0001*
	Common	104 (43.9)	55 (26.1)	
	No	42 (17.7)	74 (35.1)	
Awareness of ADR [†]	Yes	162 (68.6)	180 (84.9)	<0.0001*
	Common	42 (17.8)	13 (6.1)	
	No	32 (13.6)	19 (9.0)	
Necessity of pharmacists' advice	Yes	185 (78.7)	194 (91.5)	<0.0005*
	Common	38 (16.0)	13 (6.1)	
	No	14 (5.9)	5 (2.4)	

* p<0.01.

[†] ADR: adverse drug reaction.

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유사하였으나,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는 소비자가 17.7%, 약사가 35.1%였다. 소비자와 약사들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서는 소비자가 68.6%, 약사가 84.9%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의약품의 복약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78.7%, 약사의 91.5%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약사들이 일반의약품 복약지도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었다(표 7).

이상의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 및 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의 주의사항이나 경고문을 인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

며, 의약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가처방으로 일반의약품을 장기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설명서를 충분히 읽고 숙지하는 사용방법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즉 사용 설명서에 근거한 의약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잘못된 일반의약품 사용에 대한 전문가의 철저한 복약지도와 보건 의료 당국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고 찰

본 연구는 일반의약품의 사용과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건강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의약품에 대한 소비자들과 약사들의 인식과 지식, 사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소비자들과 약사들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지식수준은 사용설명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복용법, 경고사항, 약물상호작용, 장기사용금지, 연령제한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외 일반의약품의 사용에 관한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해열진통소염제와 종합감기약에 표시되어 있는 경고문 내용에 대하여 49.8%가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다른 약과 동시 복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50.9%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화제의 경우도 장기간 복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48.8%가 모른다고 응답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소화제 남용 실태를 보여 주었다.

자양강장드링크제도 복용법을 정확히 아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가 58.8%였으며, 연령제한에 대한 내용을 61.4%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자양강장드링크제가 일반의약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광고 등의 영향으로 피로 회복을 돕는 가벼운 음료 정도로 생각하고 용법과 용량 및 연령 제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지성인 그룹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하였다. 대학생들이 자가 판단에 의해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지식수준은 100점 만점에 48.2점으로 낮은 결과가 나왔으며,⁷⁾ 이는 의약품 오남용으로 연결되어 대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의약품을 습관적으로 장기 사용한 경험이 있느냐는 문항에 소비자들의 24.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별로는 60대의 45.2%, 70대의 64.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기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에서 현재 질병이 있는 경우가 67.4%였다. 가구당 소득이 적을수록 장기 사용 경험율이 높았다. 이는 저소득의 노인층이 여러 가지 질병과 함께 장기적으로 의약품을 동시 복용함으로써 인해 부작용 발생가능성과 오남용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들에게서 약물부작용이 흔히 일어나는 이유는 약물의 작용에 대한 감수성 증가 또는 대사의 지연문제도 있으나 약용량의 과다복용(over dose) 자의적인 약물 선택 복용(self selection of drugs) 약물 복용간격의 축소 등이 주요문제로 제기되고 있다.¹⁰⁾

장기사용의약품의 종류로는 해열소염진통제가 가장 많았고(31.0%), 다음으로 자양강장드링크제(28.6%), 파스와 연고류 및 종합감기약 순서로 응답하였다. 이는 장기 사용 의약

품에 포함된 카페인의 영향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카페인이 의학적으로 인체에 상당히 해가 된다는 일치된 견해가 없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알코올이나 흡연에 비해 잘 다루어지지 않았으나,¹¹⁾ 아주 미량에도 중독증상이 나타나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위험이 있다. 또한 함께 들어있는 항히스타민과 고감신경흥분제 등의 장기연용으로 심장 및 혈관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장기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에 금단증상이 있었다는 대상자는 52.8%였고, 하루라도 복용을 중지하면 두통, 피로, 불안 등을 호소하였다.

소비자들이 일반의약품을 사용한 후에 부작용을 경험하였다는 경우는 36.5%였다. 이는 이은숙⁸⁾의 연구에서 지난 1년간 전문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소비자가 28.4%였던 것보다 높았다. 또한 최근 3년간 본인이나 가족의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의 경험을 조사한 연구에서 38.7%의 부작용 경험율¹²⁾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일반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한 부작용의 경험이므로 처방을 받고 사용한 전문의약품 사용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반의약품을 사용한 후에 부작용 경험율이 36.5%로 높은 결과는 학력이 높은 소비자가 연구대상이 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과거에 비하여 사회전반적인 홍보와 인식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감사의 말씀

먼저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오희철 교수님, 이은숙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녹색소비자연대 이덕승 상임대표님과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참고문헌

1. 신현택. 의약품 안전성 정보의 수집, 평가 및 전파체계의 개선방향. 식품의약품안전청, 2005.
2. Holmes J. OTC contribution to primary care (usage of over-the-counter medicines). *Chemist & Druggist* 1997;21(2).
3. 한국제약협회. 의약품 등 생산현황, 2004.
4. Rimsza ME, Newberry S. Unexpected infant deaths associated with use of cough and cold medication. *Pediatrics* 2008;122: 318-22.
5. Park BJ. Pharmacovigilance for OTC Drugs. *Journal of Toxicology and Public Health* 2004;32-34(Korean).
6. Fendrick AM, Pan DE, Johnson GE. OTC analgesics and drug interactions: Clinical implications. *Osteopathic Medica-*

- tion and Primary Care 2008;2:2.
7. Cho YC, Yang HK. Knowledge and attitudes of some college students on general drugs that they use by self judgment and status and relevant factor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007;24(1):45-61(Korean).
 8. 이은숙. 소비자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례 분석 및 신고 활성화 방안연구. 식품의약품 안전청, 2008.
 9. 강정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소비자 단체 간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교류 강화방안연구. 식품의약품 안전청, 2008.
 10. Cho KH. Adverse drug reaction for the old patients. Research Information Center for Health 1998;2(1):8-11(Korean).
 11. Lee BH, Park YS, Kim JS, Yoo JH, Lee JK. Caffeine consumption and its related symptoms in university students. J Prev Med Public Health 2007;28:9-16(Korean).
 12. Kim KL. Research of adverse drug reaction. Korea Consumer Agency 2008;15:5-48(Korean).
-